

창립10주년기념 초청강연 및 WEC총회 참가보고회 개최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 지난 11월 14일 한전 본사 별관 강당에서 통상산업부 김태곤 실장을 비롯하여 협의회 부회장인 한전 최대용 부사장, 전기안전공사 홍세기 이사장, 에너지기술연구소 손영목 소장 등 관계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 초청강연 및 WEC총회 참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최대용 부회장의 인사말과 통상산업부 김태곤 실장

의 축사에 이어 장관 표창장과 회장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장관 표창은 한국전력기술 이흥주, 대한석탄공사 김용범, 한국전력공사 오문영, 한전기공 최상현, 에너지협의회 이성룡 등 5명이 수상하였으며, 회장 감사패는 한국전력기술(주) 장기옥 사장, 한전기공(주) 서석천 사장, 호유에너지(주) 권오륜 사장, 한국중공업(주) 이수강 사장, 포항종합제철(주) 홍상복 부사장 등

6명이 수상하였다.

또한 기념식이 끝난후 에너지관리공단 이기성 이사장의 「인간, 에너지 그리고 환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희성 고문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에너지의 미래」, 대림엔지니어링 선우현범 사장의 「협의회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협의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회 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한전 본사 테니스코트장에서 회원사간의 상호친목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회 회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최대용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고 틈틈이 닦은 기량을 겨뤄 서로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회의 취지를 살려 회원사간의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여 에너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사인 한전, 석공,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기술,

한중, 원자력연구소, 원전연료, 지역난방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호유에너지, 전기연구소 등 11개 회원사에서 간부조, 중년조, 청년조로 구성, 110명이 참가하여 A, B, C, D조로 나뉘어 예선과 준결승, 결승전을 가졌다.

참가 선수들은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 회원사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아울러 이번 친

선 경기를 통해 참가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유대강화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준우승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장려상에는 한국전력기술과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최우수 선수는 한전의 윤맹현 처장이 각각 차지하였다.

